

경기도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

강 창 열*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 2. 설문지 작성
- III. 연구 결과 분석
 - 1. 일반적 사항
 - 2. 음악과 교육과정
 - 3. 음악과 평가
 - 4. 음악과 시설
 - 5. 음악과 특별활동
 - 6. 교사의 연수
 - 7. 현행 7차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

* 경기도 부천 동곡 초등학교 교감.

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야 하는 동시에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 준 풍요로움 속에서 나날이 메말라 가는 인간성 회복에도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 맞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 요구된다. 이런 시대적·교육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개정된 제 7차 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1997). 이러한 기본 취지에 맞게 음악과도 음악 교육의 목표를 음악성 계발과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의 함양에 두고 심미적 체험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심성을 계발하여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목표 도달을 위해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하였으며, 세계화·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고, 의미 있는 음악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과 학습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며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것과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신뢰성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현장의 음악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교육 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 대상, 조사 도구, 자료 처리 및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 조사 대상자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하고 있는 46개 초등학교에 각 학교마다 설문지 4부씩을 제 7차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3, 4학년 담임 교사 167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설문지는 부천시 교육청 공문함을 통하여 각 학교에 배

포하였고, 기간은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청 공문함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184매 중에서 응답자 16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0.8%로 나타났다.

2. 설문지 작성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5차례의 수정을 거쳐 크게 일반적 사항 5문항, 음악 교육 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식 33문항, 주관식 4문항으로 총 42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과 교육 과정

- ① 학습 목표 만족도
- ② 각 영역별 강조하는 내용
- ③ 수업전 교재 연구 실시 여부
- ④ 새로운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의 인지도
- ⑤ 교사의 영역별 지도 능력
- ⑥ 전통 음악의 지도 및 강조하는 내용
- ⑦ 음악과 지도시 자료의 활용도

2) 음악과 평가

- ① 음악과 수행 평가 실시
- ② 수행 평가의 만족도
- ③ 음악과 수행 평가의 문제점

3) 음악과 시설

- ① 음악과 시설물 조사
- ② 음악과 자료 확충

4) 음악과 특별 활동

- 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활동

- ② 특별 활동에 대한 관심도
- ③ 음악 경연대회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5) 교사 연수

- ①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연수 참여도
- ② 현장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연수
- ③ 연수가 필요한 시기

6) 음악과 제 7차 교육 과정 운영에서의 문제점

- ① 음악 수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② 제 7차 교육 과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Ⅲ. 연구 결과 분석

경기도 부천시 초등학교 46개교를 대상으로 총 167명의 응답을 얻어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38개의 객관식 질문과, 4개의 주관식 질문을 포함 총 42개의 질문으로, 객관식 질문은 설문지 1문항을 기준으로 백분율(%) 통계 처리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문항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백분율(%) 통계 처리하였다. 또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자의 관련 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인원이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있으며, 주관식 질문은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고, 무응답자도 포함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 사항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음악 전공 현황

응답자 167명중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교사는 3.0%(n=5)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악에 대한 비전공자로 담임 교사가 음악과를 지도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음악 수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 교과 전담 교사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과 교과 전담 현황

음악과 교과 전담 교사의 현황을 알아 본 결과 167명의 응답자중 <표 3>에서 음악전공 교사가 3.0%(n=5)인 점을 볼 때, 대부분의 음악과 수업을 비전공 교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음악과 교과 전담' 12.0%(n=20)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음악과 제 7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과 교육 과정

1) 음악 교과서 내용의 학습 목표 만족도

음악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보통' 53.9%(n=90)라고 응답했으며, '만족' 28.7%(n=48), '매우 만족' 6.0%(n=10), '불만족' 11.4%(n=19)로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 목표 달성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과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 교과 지도 내용

음악과의 지도 내용을 조사 한 결과 '교과서와 참고서를 병행해서' 48.6%(n=81),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서' 25.7%(n=43)로 응답자의 74.3%(n=124)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참고서를 병행해서 수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5.7%(n=43)가 교과서 내용만을 그대로 지도하고 있어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악과 이해 영역에서 강조하는 내용

이해 영역에서는 '가락' 46.7%(n=78) '리듬' 37.1%(n=62)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식' 0.6%(n=1), '빠르기' 1.2%(n=2), '셈여림' 1.8%(n=3)는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영역별 지도 내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제시되었으나, 교사들이 균형 있는 영역별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악과 활동 영역에서 강조하는 내용

활동 영역에서는 '가창' 80.8%(n=135)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작' 3.0%(n=5), '감상' 2.4%(n=4)로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가창과 기악 활동뿐 아니라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

으며, 음악을 듣고, 노래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 교육이 되도록 중점을 두었는데,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활동 중심 음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과 이해 영역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 이해 영역에서 교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67명 중 리듬에서 '기본 장단' 45.5%(n=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한 리듬꼴' 9.6%(n=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락에서는 '가락의 흐름' 41.3%(n=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요 음계'와 '시김새'가 각각 1.8%(n=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성에서는 '장조의 주요 3화음'과 '2성부의 어울림'이 각각 41.3%(n=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음 변화' 7.8%(n=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형식에서는 '같은 가락' 55.1%(n=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가락' 6.6%(n=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셈 여림은 46.7%(n=78), 빠르기는 41.9%(n=70)가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색에서는 '목소리'가 49.7%(n=83), '악기 소리'가 11.4%(n=19)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요 음계', '시김새', '화음 변화', '다른 가락', '악곡 형식'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음악적 개념으로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수업에서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음악과 활동 영역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활동 영역의 가창에서는 '리듬과 가락을 보고 부르기' 25.7%(n=43), '듣고 부르기' 25.1%(n=42),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르기' 22.8%(n=38)를 강조했으며, '노래듣고 평하기' 0.6%(n=1), '외어 부르기' 1.2%(n=2), '지휘에 맞추어 독창, 제창, 합창하기' 0.6%(n=1), '다양한 악곡 부르기' 1.8%(n=3)가 지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악에서는 '바른 자세 주법으로 연주하기' 53.3%(n=89), '리듬과 가락보고 연주하기' 35.9%(n=60)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휘에 맞추어 독주, 제주, 합주하기' 2.4%(n=4), '간단한 화음 반주하기' 1.2%(n=2), '다양한 악곡 연주하기' 1.2%(n=2), '연주 듣고 평하기' 1.2%(n=2)로 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에서는 '가사 바꾸어 부르기' 47.3%(n=79), '짧은 리듬꼴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21.0%(n=35), '가락 만들어 적기' 20.3%(n=34)로 강조하고 있으며, '만든 곡 듣고 평하기' 1.8%(n=3), '주위 환경의 소리 악기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3.6%(n=6)로 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상에서는 '악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26.9%(n=45), '악곡의 특징을 구별하여 듣기' 23.3%(n=39), '음악을 듣고 느낌을 말하기'

19.2%(n=32)로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에서의 음악의 활용 알기' 0.6%(n=1), '악기 소리와 목소리 구별하기' 1.2%(n=2)로 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수업전 교재 연구 실시 여부

수업전 교재 연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 시간마다 한다' 11.4% (n=19), '자주 하는 편이다' 29.3%(n=49), '가끔 한다' 47.9%(n=80), '거의 안 하는 편이다' 11.4%(n=19)로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이 교재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새로운 음악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인지도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6.0% (n=127)가 모르고 있어서 음악교육에서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개인별 모듈별 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겠으며, 특히, 모듈별 수업에서의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협동 학습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9) 음악과 지도시 가장 자신 있는 활동

음악과 지도시 가장 자신 있는 활동은 '가창' 52.7%(n=88)이고, 창작 6.0%(n=10)로 가장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있는 활동이 지나치게 가창에 치우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창이 학생들의 음악 수업에 흥미를 갖는데 손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며, 교사들이 지도하기 수월한 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음악과 지도시 가장 자신 없는 활동

음악과 지도시 가장 자신 없는 활동은 '창작' 62.3%(n=104)이고, '가창' 9.6%(n=16)로 가장 자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각 활동별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음악과 실기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1) 전통 음악 지도 여부

'전통 음악을 지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도한다' 75.4%(n=126)로 응답했으며, '안 한다'

24.6%(n=41) 응답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악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현직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으로 국악 지도를 회피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국악에 대한 이해가 매우 결핍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와 실기 연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전통 음악 지도시 강조하는 영역

전통 음악을 지도한다는 응답자 126명을 대상으로 전통 음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민요 부르기' 61.1%(n=77)이며, '국악 이론'은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김새' 지도가 1.8%(n=3)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민요를 부를 때 전통적인 발성 방법이나 시김새를 살려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통 음악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전통 음악 지도보다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국악기 실기 지도

전통 음악을 지도한다는 응답자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업중 국악기 실기 지도는 '할 수 있는 것만 가려서 지도' 62.7%(n=79)로 가장 높고, '전혀 못한다' 6.4%(n=8), '필요한 국악기 모두 지도' 8.7%(n=11)로 많은 교사가 국악기를 지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사들의 국악 실기 연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악 지도를 안 하는 이유

국악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악 지식이 없어서' 31.7%(n=13), '실기 능력이 부족해서' 48.8%(n=20), '악기가 부족해서' 19.5%(n=8)로 교사 대부분이 국악에 대한 지식과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국악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음악과 지도시 교과서 외의 사용하는 교재

음악 수업 지도시 교과서 외에 사용하는 교재는 '테이프, 비디오, 오디오등의 교재' 50.9%(n=85)를 사용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46.1%(n=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으로 개발된 자료를 그대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지역성과 학교 실정,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음악과 수업 지도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자료

음악과 수업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응답자 167명을 대상으로 자료별로 조사한 결과 '각종 CD' 59.3%(n=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상업 자료' 31.1%(n=52)로 나타났다. '각종 CD'가 높게 나타난 것은 CD자료가 교재 제작 회사에서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교사들이 우수한 교재를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될 것이다.

17)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 상업 자료 현황

상업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52명을 대상으로 상업용 자료의 명칭을 직접 기록하도록 주관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A' 63.3%(n=33)를 사용하고 있으며, 'B' 13.5%(n=7), 그 외 C, D, E, F, G 자료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터넷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교육 과정에 ICT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상업용 자료를 사용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교사들이 질 좋은 자료보다는 다루기 편한 자료만 선호하기 때문에, 음악적 가치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판단력과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8) 음악과 수업 지도시 멀티미디어 활용도

수업시 멀티미디어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음악 수업 전반적인 자료' 61.7%(n=103), '시범자료' 24.0%(n=40), '감상교재' 14.3%(n=24)로 음악수업을 하는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음악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음악과 평가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법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실기와 이론을 겸한 평가' 53.9%(n=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기에 의한 평가' 40.1%(n=67)로 대부분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음악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행 평가의 실시

수행 평가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5.8%(n=160)의 응답자가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필 평가를 하는 응답자도 6.0%(n=10)로 나타나, 평가 방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수행 평가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수행 평가의 만족도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 16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행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56.3% (n=90), '만족' 28.1%(n=45), '매우 만족' 1.9%(n=3)로 응답자중 70%(n=138)가 보통이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행 평가의 기준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 160명을 대상으로 '수행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서화된 교육 과정 목표' 48.1%(n=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교육 자료에 제시된 기준안' 35.0%(n=56), '교사 자신의 임의적 기준' 16.9%(n=27)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과정에 부합되도록 전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행 평가의 문제점

수행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 부족' 42.5%(n=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당도, 객관도가 높은 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함' 37.7%(n=63)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평가의 특성에 대한 주위의 인식 부족' 11.4%(n=19),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복잡' 6.0%(n=10)로 나타나, 수행평가는 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 여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악과 시설

1)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물 현황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각 항목마다 응답자 167명에 대한 조사 결과로 '방송실' 67.7%(n=113)로 가장 높고, '음악실' 44.9%(n=75), '강당' 25.1%(n=42)로 나타났으며, '방음설치 국악실' 7.2%(n=1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설물 보유 현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책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악 자료 확충에 대한 지원

관리자의 지원 정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만 지원' 70.6% (n=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으로 지원' 12.0%(n=20), '타 교과 자료보다 차순 지원' 11.4%(n=19), '타 교과 자료보다 우선 지원' 6.0% (n=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리자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타 교과 자료보다 우선 지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악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음악과 활성화를 위해 요청되어야 할 지원을 조사한 결과 '음악 전담 교사 배치' 52.1%(n=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자기 연찬' 20.3% (n=34), '학습 자료 확충' 18.0%(n=30)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으로, 음악과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교과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야겠고, 정책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과 특별 활동

1) 음악과 특별 활동

현재 운영중인 특별 활동에 대한 조사는 각 항목마다 응답자 167명에 대한 조사 결과 '합창부' 74.9%(n=125)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물놀이부' 41.9%(n=70), '기악 합주부(양악)' 32.3%(n=54), 기악 합주부(국악) 25.1% (n=42), '전통 민요부' 15.0%(n=25) 순으로 나타났다. 합창부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악기나 준비물 없이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음악과 특별 활동에 대한 교사 관심도

음악과 특별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학생의 특기 신장 분야' 58.1%(n=97)로 가장 높고, '전 활동 분야' 26.9%(n=45), '대의 행사와 관련된 분야' 15.0%(n=25)로 나타나 일선 교사들은 특별 활동의 목적을 특기 신장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악과 특별 활동에 대한 학부모 관심

음악과 특별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교과 활동에 비해 관심이 적다'

62.3%(n=104)로 나타났으며,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17.9%(n=30), '교과 활동에 비해 관심이 많다'는 15.0%(n=25)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자연을 타 교과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악 경연 대회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음악 경연대회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연 대회보다 발표회를 갖는 것이 좋다' 53.3%(n=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위를 가려서 학생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좋다' 26.9%(n=45), '과열 경쟁으로 경연 대회, 발표회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8%(n=33)로 나타났다. '경연 대회보다 발표회를 갖는 것이 좋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억제와 교사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 교사의 연수

1) 음악 연수 참가 현황

최근 2년 동안 음악 연수 참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번도 안 했다' 65.2%(n=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번 했다' 24.0%(n=40)로 음악 관련 연수 현황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에 필요한 음악 연수

현장에서 필요한 음악 연수로는 '기악 실기 연수'가 59.9%(n=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교재 연구'가 17.4%(n=29), '컴퓨터 음악 연수' 11.9%(n=20), '현장 연수' 10.8%(n=18)로 나타났다. '기악 실기 연수'를 요구하고 있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기악 실기 능력 부족으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정책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실기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수가 필요한 시기

연수가 필요한 시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51.5%(n=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에 한 번 정도' 21.5%(n=36), '교육 과정이 개정되었을 때' 16.8%(n=28), '3년에 한 번 정도' 10.2%(n=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년에 한 번 정도'의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급속히 변해 가는 정보화 시대에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와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7. 현행 제 7차 교육 과정 운영에서의 문제점

1) 음악 수업시 어려운 점 및 대안

연구자가 어려운 점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직접 기록하도록 조사한 167명중 107명이 응답한 결과, 음악 수업시 어려운 점으로 '학습 자료 부족(악기포함)' 21.5%(n=36), '방음 음악실 필요' 18.0%(n=30), '음악과 전담 교사 배치' 18.0%(n=30)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첫째,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로는 악기가 부족하여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가의 악기를 확충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음 음악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기를 활용하는 수업은 옆 반이나 주위에 많은 소음으로 수업 방해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음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과 전담교사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담임 교사가 음악과를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멀티미디어활용, 학급당 학생수 과다 등으로 나타났다.

2) 음악과 제 7차 교육 과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연구자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직접 기록하도록 조사한 167명중 117명이 응답한 결과, 제 7차 교육 과정 운영에서 문제점으로는 '전통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5.1%(n=42)로 가장 높고, '교사들의 전통음악 실기 지도 미흡' 24.0%(n=40), '각 차시분 학습량이 많다' 7.8%(n=13)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첫째, 전통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영역별 지도를 균형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교사들이 전통 음악에 대한 실기 능력 부족으로 교과 내용을 자신있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단원별 차시 분의 학습량이 많아서 밀도 높은 수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창작 활동의 지도가 어렵다', '교과서 곡을 아동이 좋아하는 곡으로 선정', '기초 학습이 부족하다(개인차가 심함)'등이 제시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경기도 부천시 초등학교 46개교 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형식, 빠르기, 셈여림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활동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활동을 많이 강조하였으며, 창작, 감상 활동은 등한시되고 있어 교사들이 영역별 지도내용을 균형 있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과 교육 과정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교사가 교과 내용을 학교, 학급, 학생 능력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 음악 지도시 강조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민요 부르기가 가장 높고, 국악 이론은 도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시김새'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형식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직 교사들을 위한 전통 음악에 대한 연수 기회가 확대, 지속되어야 하며, 전통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 교사가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 평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 부족과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된 민요 음계, 시김새, 화음 변화, 외어 부르기, 지휘에 맞추어 독창 중창 합창하기, 다양한 악곡 부르기, 노래 평하기, 주위의 환경소리, 악기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내용은 교사들이 새로 도입된 교육 과정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음악과 지도시 사용하는 교재로는 테이프나 비디오,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이 상업적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재를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함에도 교사가 수업하기 편한 자료를 선호하여 가치 있는 음악 교재 선정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음악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음악실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나 방음 시설 국악실은 소수로 아주 미비한 편이어서, 방음 시설 국악실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현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과 특별 활동은 합창부, 기악 합주, 사물놀이, 전통 민요부, 국악 합주 등이 있으며, 그 중 합창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별다른 준비물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으므로, 장소 이용이나 운영이 쉽고, 금전적인 면에서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의 심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특별 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교과 활동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학부모들은 주지 교과를 중요시하고 타 교과 특별 활동은 도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최근 2년 동안 음악 관련 연수 참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교사가 한번도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로 인하여 제 7차 교육 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들이 현장 교육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음악 연수로는 기악 실기 연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기악 실기 능력 부족으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번째, 음악 수업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학습 자료 부족, 방음 음악실 설치, 음악과 전담 교사 배치 등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 7차 교육 과정 운영에서 문제점으로는 전통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영역별 지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교사들의 전통 음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고, 음악 교과의 각 차시별 학습량이 많아 밀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과 각 영역별 지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교사의 지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과를 전담해야 하며, 음악과 전담 교사가 모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전통 음악의 수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과 전통 음악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통 음악에 대한 실기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가 확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음악과 지도시 사용하는 교재를 재구성해야 함에도, 수업하기 편한 상업용 자료를 선호하므로 교사들의 가치 있는 음악 교재 선정의 판단력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수행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평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음악과에 대한 연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여, 연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 이므로 정책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여섯째, 음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자료의 확충(악기포함), 방음 음악실 설치, 급당 학생수 적정 인원 등 정책적인 지원 및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 교육부. 2001.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 교육부. 1998.
- 김종서. 교육연구방법. 서울 : 배영사. 1995.
- 마동영.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서울 : 풍남. 1996.
- 오선미.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교사 자질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유정이. "초등학교 전통음악교육의 실태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성신 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이성재. 음악과 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8.
- 이진경. "초등학교 음악교육 현행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최명희. "열린교육 시행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실태조사".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초, 중등 학교 교과별 수행평가 실제. 서울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999.
- _____. 멀티미디어 자료 공동개발 사업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1.
- 홍정희. "경상북도 중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ABSTRACT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in Kyonggi-do

Kang, Chang-Y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f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at a elementary school with respect to the teachers' understanding for the 7th curriculum and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musical training under the curriculum so that problems may be determined and remedies can be suggested.

A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using a questionnaire.

184 teachers at 46 elementary school in Buchon were ask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 and analysis was made based on the 167 respondent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rhythm and melody were much emphasized in the understanding while form, tempo and dynamic were de-emphasized. In singing and performing activities were emphasized while creating and listening activities were neglected.

It was shown as a result that teachers were unable to find an equilibrium among different areas.

Secondly, most of the teachers tended to reconstruct the contents of the music curriculum based on the school in question, the class and ability of the students to teach the students in class. And singing of a folk song was the area that teachers tend to emphasize in teaching traditional music to the students. It was discovered that 'Sikimsae' introduced to the 7th curriculum was hardly taught in class, and traditional music took up too much of the curriculum, giving rise to the unbalanced teaching among areas of music education.

Thirdly, almost all teachers conducted performance assessment in class to make sure that students learned what they were taught in class, bu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it. It was pointed out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time to conduct the assessment in class and

that the reasonable and justifiable criteria for the assessment appraisal was not available.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the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methods and tools be made.

Fourthly, teachers has not yet fully comprehended the newly introduced curriculum concepts, judging from their incapacity to utilize in class the scale of a folk tune, 'Sikimsae', chord change singing by memorization, singing a solo and part song as well as singing in chorus, singing evaluation, creating using sounds of the surroundings and musical instruments, all of which were emphasized in the 7th curriculum.

Fifthly, a survey of the teaching facilities at school showed that most of the schools had a music room, but it was very rare for the schools to keep a room for national classical music. It was noted that both the music room and the traditional music room were not equipped with the soundproofing system.

Sixthly, extracurricular activities related to music at school, according to the survey, included a choir, instrumental music band, 'Samulnori', traditional folk songs group and Korean instrumental music band. It was noted that most of the schools surveyed maintained a choir.

Seventhly, the survey also indicated that most of the teachers has not received any teacher training related to music for the last two years. It is therefore very likely that the 7th curriculum will be difficult to be properly implemented.

주제어 : 초등학교, 실태조사